



채송화 꽃씨 심기

송종용/심리학 박사, 서울학습장애상담센터 소장

일

찍 집에 귀가하니 초등학교 3학년 인 딸 다해가 화분에 꽃씨를 심어가는 것이 숙제라고 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은근히 아빠가 대신 해주었으면 하는 눈치였습니다.

한번도 화분에 꽃을 심어본 적이 없었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꽃씨를 어떻게 심어야 할지 모르겠니?”

“응, 아빠.”

“그럼 아빠가 도와줄까? 우리 집에 꽃씨가 있니?”

“내가 찾아 볼께.”

다해는 집안 여기저기를 뒤지더니 거실 장에 있는 서랍에서 채송화 꽃씨를 찾아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가만있자, 채송화는 어떤 흙에 심어야 하나?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책 같은데 보면 나와 있을까?”

“음.....아빠, 잠깐만.”

다해는 오빠 방으로 달려가더니 ‘어린이 학습백과’ 중에서 ‘꽃 키우기’란 책을 꺼내왔습니다.

“아빠, 아거.”

“그래! 여기 보면 알 수 있겠구나. 채송화를 찾아볼래.”

“아빠, 여기에 있어”

“그래, 여기 있구나. 처음부터 읽어볼까.”

책에 채송화는 배수가 잘 되는 모래가 섞인 땅에 심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모래와 흙이 있어야 된다는데.....흙은 있는데, 모래는 어떻게 하지?”

“집에 없다면, 나가서 구해와야겠지. 어디에 가면 모래가 있을까?”



“아! 아빠! 놀이터에 가면 모래가 있어”

“그래, 그렇구나. 놀이터에 가서 모래를 조금 퍼다가 흙과 섞으면 되겠구나!”

다해는 신나게 뛰어가더니 잠시 후 모래를 한 봉지 퍼왔고, 흙과 섞어서 화분에 넣었습니다.

“씨앗만 뿌리면 되나?”

“씨앗을 뿌린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볼까? 책을 다시 보자. 어디.....그림을 보니까 씨앗 위에 뭐가 있네”

“흙이야.”

“그래 맞아. 흙을 덮어야 되는 거야. 채송화 씨는 작으니까 아주 살짝 덮어야겠지?”

“응, 아빠 내가 할께.”

다해는 씨앗을 뿌리고 그 위에 아주 조심스럽게 흙을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물조리로 물을 주었습니다. 아주 의기양양하고 신나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입니다.

부모들은 흔히 아이들을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 해주거나 답을 직접 알려줍니다. 아니면 “네가 알아서 해”라고 방치해 버립니다.

전자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지 못하고 의존적인 아이로 만드는 방법이며, 후자는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좌절감을 주는 대화법입니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아이가 생각해야 할 것을 부모가 말로 표현해주게 되면, 아이는 이를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는 문제 해결 기술을 배우고 자신감이 생기며 부모에 대한 믿음도 갖게 됩니다.